**"New Mission in New Normal"**

급변하는**새로운**시대에 **새로운**선교를 시작합니다.

팬데믹 이후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선교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선교지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국제 비영리 단체인 AAH! (American Assimilation Helpline!)는 난민 아이들을 1대1로 가르쳐 주는 봉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미국 조지아 마리에타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숙제와 공부를 도와 주었습니다. COVID-19으로 인해서 모든 봉사는 온라인으로 전환되었고, 팬데믹 기간 동안 봉사를 해야하는 고등학생들과 학업에 도움이 필요한 초등학교 아이들이 매주 온라인으로 주일 5시부터 6시까지 1대1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AAH!는 규모가 커져서 대통령 봉사상(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미주 한인 교회 Youth Team 과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연결해서 선교사님의 자녀분들에게는 미국 교육 커리큘럼을, 선교지의 현지인들에게는 영어 교육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이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한 가정이 선교사님을 맡아서 청소년이 아이들을 온라인으로 가르쳐 주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정이 "함께" 이루는 일을 기대합니다. 선교지에서 교육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전 세계 85% 사람들은 (2023년 예상) 스마트폰을 소유하게 됩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전 세계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 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이 **"관계"**로 이어지지 않고, 더 고립되고 더 외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기선교"**에서 "**장기선교"**로 이벤트로 끝나는 선교가 아니라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관계"**를 만드는 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복음으로 연결되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귀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Freetutoring@americanassimilationhelpline.org](mailto:Freetutoring@americanassimilationhelpline.org)  [leeyoungah@gmail.com](mailto:leeyoungah@gmail.com)  카톡아이디:kitty0000me,   CaseyJack 문의하시기 바랍니다.